

오늘 농업인의 날 우리 곡물 가래떡은 어때요?

농진청, 농업인 노고에 감사·가래떡 나눔 행사

오늘은 정부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해 1996년 '농업인의 날'로 지정된 날이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하며, 우리 곡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 곡물로 만든 가래떡 나눔 행사를 10일 열었다. 국립식량과학원 본관 1층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우리 쌀과 밀(아리흑)로 만든 가래떡 300개(쌀 70kg)를 나누었다.

정부의 농업인의 날 지정에도 불구하고 '11월 11일'을 막대과자 주고받는 날로 인식한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취지가 흐려지자 정부는 이날을 '가래떡 데이'로 지정하고, 쌀 소비촉진과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가래떡은 쌀뿐 아니라 밀, 귀리 등 곡물을 섞어 만들어 먹으면, 다양한 건강기능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별미다. 쌀은 나이아신(niacin) 등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질적으로 우수한 곡물이다. 쌀에는 탄수화물(80), 단백질(6.4), 지방(0.4)이

풍고루 들어있지만, 비타민 B(B1)이 적은 편이라 단백질, 비타민 B(B), 항산화성분이 많은 밀, 귀리와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하고 맛있는 가래떡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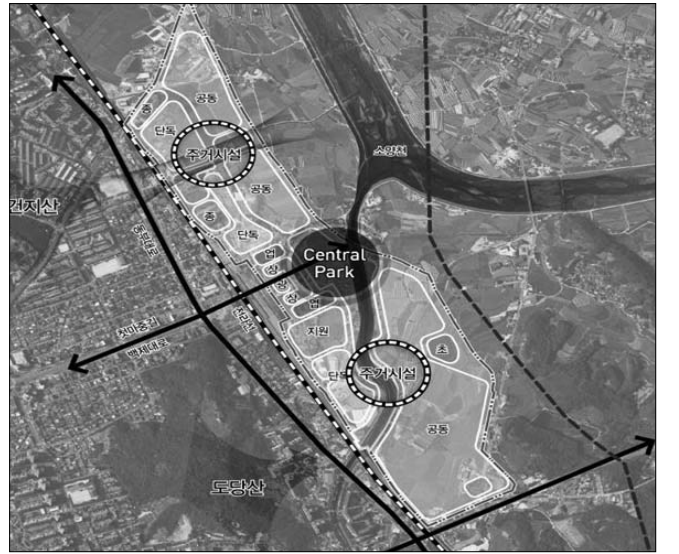
밀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80%를 차지하는데, 특히 단백질 비율이 10% 이상으로 다른 곡물에 비해 높다. 통밀에는 적은 양이지만 칼슘과 인 성분이 들어있으며, 비타민 B1(B1), B2(B2) 등의 기능성분도 함유돼 있다. 특히 흑자색의 '아리흑' 품종은 일반 밀보다 건강기능성분인 안토시아닌, 탄닌, 폴리페놀 성분이 많고 항산화 능력도 10배가량 높다.

귀리는 단백질(11~14%), 지방(5~9%), 비타민B(B)군(B1, B2)이 많이 들어있으며, 베타글루칸과 귀리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베나쓰라미드 등 다양한 면역력 강화 성분을 함유한 건강식품이다. 특히 '대양' 품종은 다른 국내 품종에 비해 크기가 크며, 총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 함량이 많고 항산화 활성이 높다.

곡물 가래떡은 쌀작 구워 풀이나 조청을 곁들여 먹거나, 떡볶이나 소시지떡(소떡소떡)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김상남 원장은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적극행정 차원에서 우리 곡물의 우수한 건강기능성분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우리 농산물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내 농산물 소비도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역세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위치도.

이달 말 전주역세권 지장물 조사

LN전북본부, 용역업체 선정 완료... 주민설명회 후 착수키로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는 지난 9월말 발주한 '전주역세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에 대한 업체선정(쥬프리임 감정평가법인)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 후 11월 말부터 지장물 기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장물 기본조사는 사업지구 내에 향후 보상에 산정될 지장물 현황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내역은 향후 보상에 산정될 지장물 현황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주역세권 사업지구 내에는 주택 80여동, 상가 70여동, 창고 17여동, 비닐하우스 185여동 등 약 1천여건의 지장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평가기관의 기본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장물 기본조사는 코로나 19 등 외부적 요인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21년 하반기 보상착수 예정인 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전주시 덕진구 우이동 일원에 약 106만5,000㎡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기간은 내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다.

사업이 완료되면 전주역 신규 배후 거점도시를 형성해 전주시 동부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LH전북본부는 지역 주택수요여건을 고려해 2028년까지 전주역세권을 단계별로 개발·공급할 예정이며, 전주역 생활권과 연계해 위해 임체보행로 조성, 단지 연결도로 및 동부대로 접속도로를 확대하고, 동부대로 정체방안을 수립하는 물론, 금융·드론산업 등 지역 전략사업을 위한 입지공간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단지를 어뮤즈먼트존(Amusement Zone)과 컴포트존(Comfort Zone)으로 특화해 전략산업 인프라 및 창업지원을 위한 성장동력 공간을 확보하고, 이중전면 한옥 카페거리 조성 등 수변특화, 중앙공원 전문문화공간 및 '한'스타일 반영, 상업건축물 특화 등을 통한 배움관광 조성 및 보행로를 조성하여 친환경 정주환경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경진원 방문 특강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을 방문해 임직원과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와 남북관계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이 장관은 달라지고 있는 한반도의 경제와 변화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경진원과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주최하고, 경진원이 주관한 이번 특강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인 지자체와 정부의 협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지훈 원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전라북도과 경진원을 방문해주시는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경진원은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K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0일 전주시청 부시장실에서 '전주시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KF94 마스크 전달식'을 가졌다.

시민들을 위한 사랑의 방역마스크

전북은행, 전주시에 1만장 기부

K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0일 전주시청 부시장실에서 '전주시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KF94 마스크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전주시 최명규 부시장, 전북은행 임재원 부행장, 송형섭 전주시청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감염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항토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 확산예방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기부된 KF94 마스크 1만장은 함께타는버스시민연대를 통해 전주시 관내 시내버스에 비치될 예정이

며,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행 임재원 부행장은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인 현재 상황에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북은행은 지속적으로 지역공헌활동을 펼치며 금융으로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올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위기극복을 위해 본점 및 전 영업점 자율방역, 코로나19 방역물품 기부, 착한 임대료 운동,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한일 캠페인 등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조달청, 혁신시제품물 지정업체 현장방문 나서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10일 전주시에 소재한 혁신시제품물 지정업체인 주식회사 일루베이션(대표 원형필)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올해 4차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일루베이션의 비점축식 양돈모바일 체중 관리기(VIEW)는 90~120Kg의 비육돈을 비점축 방식으로 체중을 확인함으로써 기존 계량용 가속 체중계(양돈용)를 사용한 측정 대비 99% 이상의 정확도를 확보하며 지속적인 돼지의 체중 관리를 통한 적절한 출사시점을 예측,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장비로 양돈 스마트팜 및 양돈 산업 종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전북은 농도로서 디지털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스마트팜 분야 기업들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이은미 생진원 본부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2020년도 지역산업진흥 공로자 포상'에서 지역산업진흥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산업혁신본부 이은미 본부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은미 본부장은 지난 2001년 12월 생물산업진흥원 인사 이후 약 19년간 도내 농생명·식품산업의 기업성장 생태계 구축과 정부의 전북도 지역산업 정책 수립에 이바지해왔다.

현재 산업혁신본부를 맡고 있는 이은미 본부장은 그동안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기반조성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30여건의 대형 지역 맞춤형 사업을 기획, 총괄하여 왔으며, 산학연 협업체 운영을 통해 기술기반 제조업 중심의 전북 지역산업 진흥을 돕고, 농생명·식품산업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

올해부터는 전북 농식품산업의 고용성장 및 혁신, 고도화를 위해 농생명·식품산업의 전방위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으로 인생사진 찍으러 오세요'

개발청, 인스타그램 행사 진행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지난 9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새만금 포토존(사진촬영 구역)에서 사진을 찍고 해시태그("# 새만금과 나의 성장앨범")를 달아 추억을 공유하는 인스타그램 행사를 진행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0월 해넘이쉼터, 신시광장, 소라쉼터, 가력도 체육공원에 설치한 포토존을 공개하고, 이곳에서 찍은 나만의 특별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 경품을 준다.

당첨자는 새만금개발청 인스타그램을 통해 12월 초 발표하며, 우수작 10편을 선별한 후 추첨을 통해 최우수상 3편(문화상품권 3만원)과 우수상 7편(문화상품권 1만원)을 선정하며, 장려상 50편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제공한다. /유호상 기자

포토존은 새만금의 변화모습을 조망하기 쉬운 방조제 4개소 해넘이 휴게소(해상풍력발전사업 모습), 신시광장(신시아비관광단지개발 모습), 소라쉼터(동서도로와 공공주도 매립사업 모습), 가력도체육공원(관광레저용지개발 모습)에 설치했다.

이들은 위치별 전망과 특색을 반영하고, 각기 다른 디자인과 주제로 설치해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새만금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나와 새만금의 성장앨범 포토존'은 새만금 방문 시 촬영한 새만금의 변화모습을 사진첩으로 제작해 자신의 성장과정과 새만금의 발전과정을 동시에 비교하며,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남원 덕과면서 '나눔축산운동'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전북지리산낙협(조합장 이안기)은 10일 남원시 덕과면사무소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위한 축산물(500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나눔축산운동' 축산물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안기 조합장은 "전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축산인들의 정성을 담아 지역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후원물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나눔축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려운 이웃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축협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일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축산인의 정성을 담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과 사랑을 전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 앞장

LX, 일자리위원회 주최 '일자리 엑스포' 서 정책 소개 공간드림센터 창업기업과 함께 창업 성공모델 공유

오늘 취업설명회 통해 'NCS 블라인드 채용제도' 설명

한국도정보공사(LX, 사장 김정렬)가 국토정보 분야의 '한국판 뉴딜' 추진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나섰다.

LX는 어제와 오늘 양일간 서울 강남 코엑스 D홀 행사장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 참가한다.

이번 엑스포는 '한국판 뉴딜 일자리, 지역에서 앞장섭니다'라는 주제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일보사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엑스포에 참여하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은 우수 일자리정책 사례와 사업들을 소개한다.

LX는 '스마트 사회를 잇는 국토정보 일자리'라는 주제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국토정보 일자리 창출 전략을 선보인다. 특히,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된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공간정보 활용과 증강현실을 통한 체험형 콘텐츠 등을 마련해 많은 관심과 흥미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원스톱 창업 패키지'를 지원하는 LX공간드림센터의 창업기업과 함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창업 성공모델을 공유한다.

이날 함께하는 창업기업 중 '에코아이티'는 카메라를 활용한 이미지로 3차원 공간정보를 산출하는 신기술로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 서비스를 수행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제이토드'는 센서·인식모듈을 활용한 인터랙션 기술을 접목한 체험 공간 '플래티카'로 각광받은 기업으로, 엑스트림 버전의 '투프앤클라우드' 사업모델을 소개하며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포부와 전망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카운터'로 K-방역의 최전선에서 언택트 시대의 선도주자로 재도약하는 창업 성공기업 '아이디어'는 국내 최초로 IoT 기반의 무인계수기 개발로 차별화된 노하우와 성공비결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LX는 오늘 열리는 취업설명회 '인싸인터뷰'를 통해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 있는 구직희망자에게 'NCS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설명하고 다양하고 실속 있는 취업 팁을 제공한다.

김정렬 사장은 "코로나19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자 새롭게 도전해야 할 기회"라면서 "LX는 K-공간정보 육성의 원동력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디지털 뉴딜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엑스포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전시를 병행해 진행된다. 온라인 전시는 홈페이지 '대한민국일자리엑스포.com'을 통해 11월 2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